



서희주가 2022 버밍햄 월드게임에서 화려한 검술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 “수술도 못막아” 우수 서희주 ‘부활’

### 버밍햄 월드게임 동메달... 전남우수협 “내년 2년째 금 위해 적극 지원”

우수 여자간판 서희주(사진·전남도우수협회)가 2022 버밍햄 월드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도우수협회(회장 윤병용)는 최근 미국 버밍햄에서 열린 2022년 버밍햄 월드게임에서 전남도우수협회 서희주가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서희주는 검술·창술전능(두개 종목 합산성적)에 참가해 베트남, 캐나다에 이어 종합점수 18.32를 획득,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다. 지난해 6월 전방십자인대 재수술을 받고 2022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후 재기의 무대에서 우뚝 섰다. 2019년 세계우수선수권대회 이후 코로나로 인해 3년만에 개최된 대회에서 기량점검을 마쳤다는 의의도 있다. 월드게임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위부터 6위권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다. 서희주는 “3년만에 참가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해 너무 기쁘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 잘 준비해서 내년 아시안게임에서 꼭 금메달을 획득하겠다”고 밝혔다.



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우수협회 윤병용 회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열린 국제대회에서 전남 선수가 메달을 획득해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내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시상대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전남우수 선수들을 적극적인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동성중,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

제26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동성중이 우승을 차지했다. 동성중은 지난 15일 순창팔덕다목적경기장에서 끝난 동우회장기 야구대회 결승에서 무등BC를 8-2로 이기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총장BC·진흥중·광주BC(이상 A조), 무등BC·동성중·GJ스타즈BC(이상 B조) 등 6개 야구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조별 리그전으로 진행됐다. 비가 내리면서 추첨으로 승부를 결정할 첫날 동성중은 무등BC에 2-7로 패했지만 둘째 날 GJ스타즈BC를 20-1, 5회 콜드게임승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총장BC를 3-1로 이긴 동성중은 무등BC와의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우승팀이 됐다. 동성중은 최우수선수상, 우수투수상, 타격상, 최다도루상, 최다타점상도 휩쓸었다. 한편 제26회 동우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와 제2회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초등학교 저학년 야구대회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점단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동성중이 지난 15일 순창팔덕다목적경기장에서 끝난 제26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 : 서다름(동성중) ▲우수투수상 : 박현우(동성중) ▲타격상·최다도루상 : 이태훈(11타수 8안타·타율 0.727·2개·동성중) ▲최다타점상 : 김근화(5타점·동성중) ▲감투상 : 장울

(무등BC) ▲미기상 : 김태강(무등BC) ▲감독상 : 강대성 감독(동성중) ▲지도상 : 김중석 부장(동성중) ▲심판상 : 박래준 심판위원(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체육고 조수혜 ‘고교 최강 공사’

### 화랑기 양궁, 금 3·은1·동1 획득

광주체육고 양궁부 조수혜(2년·사진)가 전국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17일 광주체육고에 따르면 양궁부가 최근 전북 오수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 제43회 화랑기 전국시도대학 양궁대회에서 금메달 3개(50m, 60m, 개인종합)와 은메달 1개(70m), 동메달 1개(여고단체전)를 획득했다.

조수혜는 고교 최강 공사로 자리매김했다. 대회 첫날인 지난 11일 여고부 70m에서 336점을 쏘아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60m에서는 349점을 획득해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음날 열린 50m 경기에서도 345점을 쏘아 2위보다 6점 많은 기록으로 2번째 금메달을 추가했다.

조수혜는 개인전에서도 파죽지세로 금메달을 따냈다.

울산스포츠과학고 서보은을 6-2(29-27, 30-24, 27-28, 29-28)로 꺾고 3번째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승현(2년), 이다영(1년), 이승현(1년)과 함께 출전한 여고부단체전 준결승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조수혜는 지난해 전국체전 70m 동메달과 올해 대통령기 70m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는 최고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조수혜는 “1-2초 내 발사를 집중적으로 훈련



했고, 감독과 지도자의 ‘잘할 수 있다’는 응원과 격려가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돼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제안 광주체육고 교장은 “코로나19로 운동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양궁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다”며 “10월에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금녀의 벽’ 허무는 미국프로풋볼

###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 여성 사장 모건 임명 아버지 아프리카계 미국인·어머니는 한국인

미국 4대 프로 스포츠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미국프로풋볼(NFL)은 설 새 없이 선수들이 충돌하는 격렬한 종목이다.

‘금녀의 벽’으로 여겨진 NFL에서 최근 들어 속속 구단 수뇌부에 흑인 여성이 등장해 변화를 예고한다.

지난 8일(한국시간) NFL 아메리칸풋볼콘퍼런스(AFC) 서부지구 팀인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는 샌드라 더글러스 모건(44·사진)을 새로운 사장으로 임명했다.

AP 통신은 “모건은 여성으로는 3번째, 흑인으로도 3번째로 NFL 구단 사장이 됐다. ‘흑인 여성’으로 따지면 최초”라고 전했다.

변호사 출신인 모건은 네바다주 게임 통제 위원회(Nevada Gaming Control Board) 회장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라스베이거스 슈퍼볼 개최위원회 부의장을 맡으며 라스베이거스 구단과 인연을 맺었다.

과거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사카고 카디널스에서 뛰었던 와이드 리시버 돈 모건이 그의 남편이다. 미국 매체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모건의 아버지는 공군에서 복무했으며, 어머니는 한국인이라고 전했다.

모건은 수많은 편견을 극복하고 ‘남자들의 세계’인 NFL에서 구단을 움직이는 최정점에 등극했다.

모건은 취임식에서 “구단의 약속과 미래를 믿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에는 라스베이거스의 최대 라이벌 구단인 덴버 브롱코스에서 사상 첫 ‘흑인 여성 구단주’가 탄생하기도 했다.

북미 프로스포츠 최고액인 46억5000만달러(약 6조 1613억원)에 덴버를 인수한 ‘윌턴-페너오너십’에 멜로디 흡스(53) 스타벅스 회장의 지분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 감독인 조지 루카스의 부인인 흡스는 2020년 흑인 최초로 스타벅스 회장에 취임한 데 이어 NFL 무대에도 영향력을 확장했다.

덴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2일에는 콘돌리자 라이스(68) 전 미국 국무장관까지 오너십 그룹에 추가했다.

미식축구 광팬으로 이름난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과거 NFL 커미셔너 후보로 거론됐으며, 2018년에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감독으로 갈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흡스와 라이스의 구단 내 지분율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NFL 사무국은 다양성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NFL 그라운드에는 조금 더 일찍 여성에게 문을 열었다.

2015년 NFL 사상 첫 여성 전임 심판으로 계약한 새러 토머스(49)는 2019년 AFC 디비저널 라운드 ‘다운 저지’를 맡아 첫 플레이오프 심판 기록을 썼다.

토머스는 2021년 열린 슈퍼볼의 심판진으로 활약해 최초의 슈퍼볼 여성 심판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탐간: 매버릭
- 2관 헤어질 결심, 범죄도시 2
- 3관 탐간: 매버릭, 범죄도시 2,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 4관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 5관 탐간: 매버릭
- 6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9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7관 세네케를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
- 8관 세네케를 헤어질 결심, 엘비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0회 정기연주회

**신나는 국악여행**

일시 : 2022.07.28.(목)-30.(토)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40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7.01.(금)-31.(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